

2016 년 12 월 25 일 "(성탄절) 성탄의 선물: 자녀됨의 권세"(요 1:9-13)

예수님은 성탄과 함께 가져오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갈 때 풀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너무 크고 깊어서 혼자 풀러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참 빛의 탄생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은유합니다. 빛으로 오신 사건은 마태, 누가의 복음서에는 탄생 기사로 나타납니다. 요한은 영적 의미를 더욱 살리려고 배경 이야기를 빼고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믿어왔던 유대교 방식(프리즘)대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미워하고, 모함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로마 권력을 이용하여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지식이 옳다는 확신 위에, 결코 새 것을 발견하거나 새 것에 대한 끌림이 없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과 만날 때 그에 대한 직관과 이해가 생겼습니다. 아직은 그분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를 따릅니다. 제자들,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이들은 후에 성령 받았을 때, 내가 어둠 속의 죄인이었음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2] 성탄의 선물: 자녀 된 권세

예수님이 빛으로 어둠에 들어오셨다(성육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12 절.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드러냄으로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성탄하셨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권세> 권세라고 번역된 원어가 두개: '뒤나미스'와 '엑수시아' 뒤나미스라는 말로부터 다이나마이트가 파생 되었습니다. 자연적, 물리적인 힘, 세력,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명령권, 심판권, 통치권 같은 사회 정치 법률 도덕과 같은 인간 삶의 영역에 사용됩니다. 예수님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물리쳤다는 말은, 사탄의 거짓 통치를 이겼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는 진리의 참 생명을 세워 주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자녀답게** 참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안에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따릅니다.

(1) 어둠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둠의 권세에 순종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과 가장 가깝습니다. 어둠의 권세 아래서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과장되고 헛된 표정과 몸짓이 많습니다. 그러나 빛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신의 본질을 규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세상도, 부모도, 자기 삶의 역사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도 나의 본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13 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삶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는 일의 연장선에서 똑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현재 새로운 의미를 찾고 배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원로 배우 이순재씨는 공연마다 매회 반복하는 대사를 하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그리고 '비교적 원작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한

작품을 수십 회 공연하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말은, 기계적이고 논리적인 세상의 흐름을 넘어서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같습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 매일 일하는 직장, 매일 감당하는 일(육아, 봉사, 학업 등...)은 반복적이지만 결코 어제의 삶을 copy 해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paste 하지 않고, 애써 새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빛 아래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바로 이런 삶을 너끈하고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삶이라는 선물의 큰 패키지를 매일 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주시는 선물은 삶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새 의미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맺음>

삶을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제의 생각과 습관과 방식에 붙잡혀 있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운동 선수가 전후반전 사이에 있는 half time 에 하는 일은 전반전을 잊어버리고 후반전에 새롭게 임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2016 년 맞아서 이 성탄의 선물을 잘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권세 안에 있습니다.

<나눔의 질문>

1. 나의 일상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큰 패키지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2. 주님께서 매일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겹세마네의 기도에서처럼 고통의 잔을 피해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시는 고백이 그분의 삶의 중심이라면 매일이 똑 같은 하루였을까요?
3. 어둠의 권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새 의미와 가치가 열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간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을 바꾸고 주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나의 현재를 기쁨으로 살게 하는 최상의 삶입니다. 이제 이러한 삶을 위해 나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 지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